



Q&A

보균성결핵환자에 대해 궁금합니다.

Q 초등학생인데 보균성결핵 진단을 받았습니다. 보균성결핵이란 무엇이며, 전염력은 걱정 안 해도 되는 건지, 어떤 증상을 보이는지, 학교에서 관리해야 할 내용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 아마도 잠복결핵 감염을 말하시는 것 같습니다. 잠복결핵이란, 현재 실제로 결핵을 앓고 있지는 않고 다만 결핵균에 감염되어 있는 상태에서, 일반적으로 전염성은 없고 특별한 증상도 없습니다. 소아 잠복결핵의 경우, 실제로 결핵 발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한 가지 정도의 약물을 예방적으로 복용하는 수가 있는데, 이럴 경우 치료를 잘 받고 있는지 여부, 부작용 여부 및 혹시 실제로 호흡기 증상 등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종 확인해 보시고, 만약 추후에 부작용이나 기타 증상이 있다면 다시 검사를 받으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결핵에 좋은 음식이 궁금합니다.

Q 결핵은 면역력이 떨어져서 생기는 거라서 면역력에 좋다는 말린표고버섯을 먹으려고 합니다. 식사는 원래 하던 대로 하면 된다고는 하지만 가리는 것도 있는 것 같아서 염려가 되네요. 당연히 먹어도 되겠지요? 그리고 과일도 많이 먹으면 좋다고 하는데, 가리지 않고 먹어도 되나요? 먹으면 도움 되는 음식이 궁금합니다.

A 결핵에 특별하게 좋은 음식은 별도로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일반적으로 모든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시면 되겠습니다. 음식으로 드시는 것은 별로 금할 것이 없지만 한약제제나 건강보조제 등과 같은 것은 결핵약의 흡수와 부작용 등을 고려하여 권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완치 후 후유증인지 궁금합니다.

Q 9개월 동안 약 먹고 3월 15일 쯤 완치 판정을 받았는데요, 3월부터 가래가 좀 많이 생기는 거 같더라고요. 지금도 그렇고요. 마른기침도 한번씩 하고 가래 섞인 기침도 해요. 지금은 편도도 부었어요. 감기인가 해서 감기약을 먹어도 안 떨어지네요. 후유증일까요?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희 아이도 같이 예방약을 9개월간 먹었는데요. 후유증이라면 같은 증상을 보일까요?

A 폐결핵을 앓고 나면 대부분 후유병변이 남게 되며, 병변 부위 및 주변의 기관지가 협착 또는 확장되기도 하여 재발하지 않더라도 객담, 혈담 등의 증상이 종종 나타날 수 있습니다. 결핵 치료 후 과로를 예방하며 규칙적인 식사와 생활 등으로 건강을 잘 유지하도록 하시면 될 것입니다. 정기적으로 담당의사와 상의하시고 필요 시 검사를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그리고 아이가 받은 잠복결핵 치료(예방치료) 후에는 후유병변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BCG접종에 대해 궁금합니다.

Q 어디서 보니까 BCG를 성인이 된 후에 다시 맞아야 한다고 나와 있던데요. 정확한 사실이 궁금합니다. BCG가 어렸을 때 맞았더라도, 백신의 유효기간이 있어 성인이 된 후에 보통 20대 때 다시 맞아야 한다는 글이 있던데 사실인가요? 다시 맞아야 하나요?

A BCG는 영유아나 소아에서 특히 치명적인 결핵을 예방할 수 있으므로 접종이 필수이지만, 접종 후 10~20년 후에는 예방효과가 별로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이 시기의 성인에서 추가로 비시지 접종을 함으로써 결핵 감염을 예방하거나 결핵의 발생을 줄이는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현재 성인에서 추가접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관해서는 결핵연구원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핵성 늑막염 흉통에 대해 궁금합니다.

Q 제가 폐결핵과 결핵성 늑막염을 진단받고 약을 먹은 지 5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흉통이 남아있어요. 처음엔 흉통이 진짜 오른쪽 상반신 전체에 있었는데 약을 먹으니 점점 흉통 부위가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두 달 전 부터는 흉통 부위가 줄어들지 않고 그대로예요. 의사 선생님이 검사 결과 다제내성결핵도 아니라고 하셨고, 엑스레이 상 결과도 점점 좋아지고 있으니 흉통은 계속 기다려보자고 하시네요. 결핵약은 6개월 복용하는 거라 해서 이제 한 달 뒤면 병원 가서 검사 한번 더하고 약을 끊게 될 것 같은데, 그럼 저는 계속 이렇게 흉통이 있는 채로 살아야 하는 건가요?

A 일반적으로 결핵성 흉막염(늑막염)을 앓게 되면 흉수(늑막액)가 흡수되고, 폐를 싸고 있는 두 겹의 흉막이 비후·유착되는 현상이 생기게 되어 신경이 눌리거나 자극받게 되므로 흉통이나 가슴 결림 등의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를 줄이고자 치료과정에서 스테로이드나 섬유용해제 등을 별도로 사용하는 수도 있지만 큰 효과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흉막염에 관한 결핵치료가 잘 되고 있어도 치료 중이나 치료 후에 흉통이나 결림 증상 등이 지속되거나 간헐적으로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담당의사와 잘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